

CIFC BiAnnual





CIFC **BiAnnual**

Vol.1 | 201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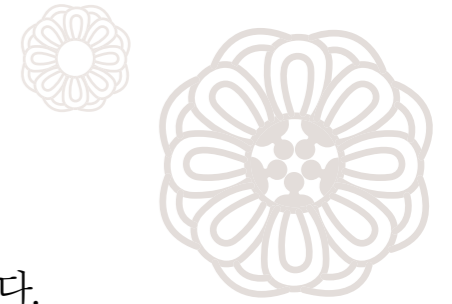
SHARING KOREA'S BEST FINANCIAL PRACTICES & EXPERIENCES



CONTENTS

- 04 발간사
- 06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 14 2017년 상반기 주요사업보고
 - 16 공동 패널 토론회
 - 20 베트남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 28 베트남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동향 세미나
- 30 기고 : 우리 금융회사의 對베트남 진출 환경 및 향후 전망
 - 32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 38 공동 초청연수 지원
 - 40 정례회의 및 간담회
 - 43 하반기 주요사업 일정
- 44 기고 : 한국거래소(KRX)의 캄보디아 증시설립사업 경험
- 48 2017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황

해외금융협력협의회 2017년 상반기 반기보고서 발간사



“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우리나라의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3년 설립된 이래 다양한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세계에 폭넓은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이제 지난 4년 동안 이룬 여러 협력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반기보고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 20개 회원기관들은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해외 금융협력협의회가 설립되면서 회원기관들은 보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국내외 금융협력포럼, 신흥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회원기관들은 이들 사업을 통해 해외 유수의 기관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였고 우리나라 금융발전의 경험 및 노하우를 전파하는 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금융협력 사업은 저개발국의 경제발전 지원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부합합니다. 금융협력 사업을 통해 저개발국들의 금융부문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경제발전은 한층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선진국들이 개발원조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며, 우리나라도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저개발국의 경제발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지난 7월에 개최하였던 한-몽골 금융협력포럼은 우리나라 금융공기업과 금융회사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으며, 양국은 이를 통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등 우리의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많은 신흥국들과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협의회 회원기관들의 적극적인 성원 및 참여와 금융당국의 앞선 협조가 있었습니다.

금융협력 사업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양국 간의 금융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과 이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금융당국 간의 긴밀한 금융외교와 함께 참여한 금융회사들 간의 긴밀한 상호교류가 필요합니다. 저희 협의회는 금융협력 사업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활동한 지 5년째 되는 이 시점에 협의회는 금융협력 사업을 정리하고 여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향후 국내 금융발전에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반기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 참가자들이 금융협력에 대해 더 넓은 이해와 인식을 갖기를 바라며, 이 반기보고서가 계속해서 발간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신성환**



Shin, Sunghwan
Chairman,
Council 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설립배경 & 회원명부

“ 해외금융협력협의회(CIFC)는
국내 20개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의 협의체입니다. ”



해외금융협력협의회(CIFC)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금융협회가 글로벌 금융협력을 위해 회원으로 활동하는 협의체입니다. 20개 회원기관들이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원기관들은 그 동안 축적해온 금융부문의 지식과 경험을 해외 주요 협력기관들과 공유하면서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이러한 회원기관들의 글로벌 금융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외 협력국가의 정책당국 및 협력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매년 금융협력포럼, 해외공무원 초청연수, 금융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국내 금융부문의 글로벌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20개의 국내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ARTNERS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연혁

2013 KEY ACTIVITIES



- 03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및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활동 시작
워크샵 제1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워크샵

- 04 4월 정례회의
연구사업 「우리나라 경제·금융발전에서 공공금융기관의 역할」 발주

- 05 5월 정례회의

- 06 6월 정례회의
초청연수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초청
세미나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 세미나

- 07 7월 정례회의

- 09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
초청연수 베트남 증권감독위원회 초청 연수

- 10 10월 정례회의
현지포럼 우즈베키스탄 보험산업 발전 포럼

- 11 2013년 정기총회
간담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해외금융협력 간담회

- 12 **강연** 국제결제은행(BIS) 심일혁 박사 초청 강연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세미나
워크샵 제2회 해금협 워크샵

2014

KEY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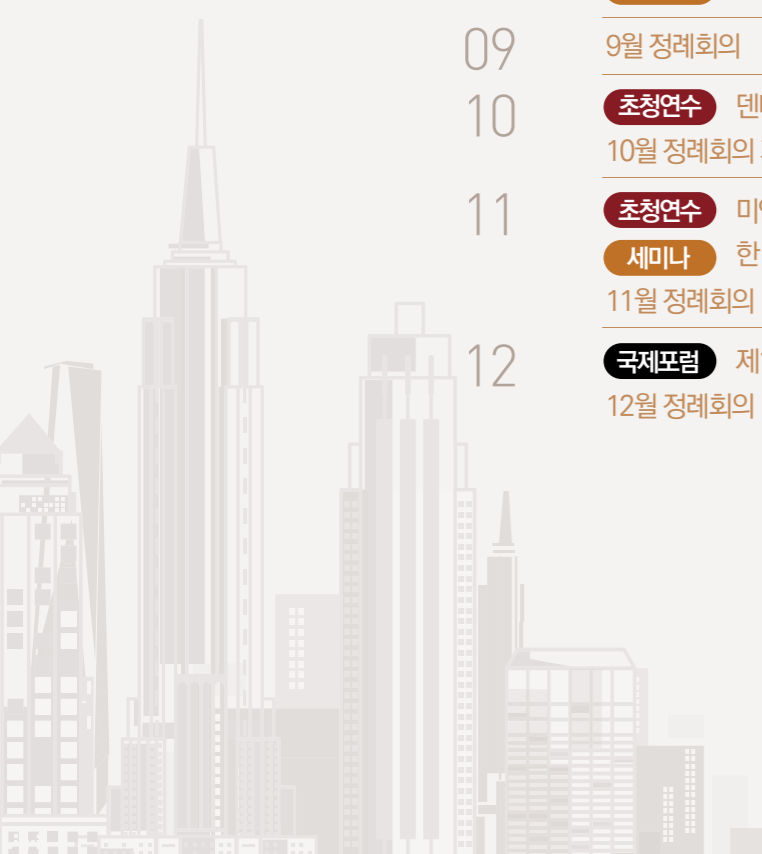
2015

KEY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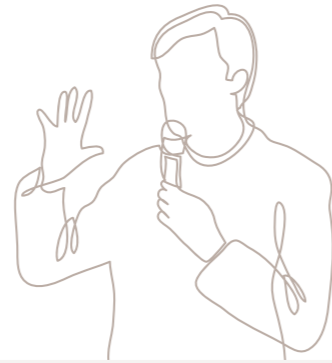
- 01 **초청연수**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 02 2월 정례회의
- 03 3월 정례회의
- 04 **국제포럼** 제1회 한·영 민간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4월 정례회의
- 05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한류 확산을 위한 간담회
현지포럼 한·미얀마·ADB 금융협력포럼
- 06 6월 정례회의
연구사업 「국내금융의 성공적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발주
- 07 7월 정례회의
- 08 **초청연수**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태국 금융협력 세미나
- 09 9월 정례회의
- 10 **초청연수** 덴마크 Danske Bank부사장 초청
10월 정례회의 개최
- 11 **초청연수** 미얀마 Myanmar Insurance 초청
세미나 한·미얀마 금융협력 세미나
11월 정례회의
- 12 **국제포럼**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12월 정례회의

- 01 1월 정례회의
- 02 2015년 정기총회
- 03 3월 정례회의
초청연수 IDB Korea Insights Program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은행권 초청
- 04 4월 정례회의 개최
- 05 **연구사업**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심층조사」 발주
연구사업 「한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발전과정 및 경쟁력 평가」 발주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해외진출 현장간담회
간담회 베트남 경제부총리 오찬 간담회 개최 지원
국제포럼 제2회 한·영 민간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 06 **워크샵** 제3회 해금협 워크샵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초청 강연
금융세일즈외교를 위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수요조사
- 07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회사 해외진출 간담회
7월 정례회의
- 09 **간담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진출지원 간담회
9월 정례회의
- 10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 (OJK)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세미나
- 11 11월 정례회의
- 12 **국제포럼**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12월 정례회의



2016

KEY ACTIVITIES



2017

KEY ACTIVITIES



- 01 1월 정례회의
- 02 **간담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진출지원 간담회
2016년 정기총회
- 03 **초청연수** 우즈베키스탄 정보기술통신발전부 산하 알로카뱅크(Aloqabank) 초청
워크샵 제4회 해금협 워크샵 - WB 송도사무소 초청 강연
초청연수 미얀마 중앙은행, 재무부, 국가경제발전기획부, 건설부,
주택건설개발은행 초청
세미나 미얀마 공무원 초청 주택금융 세미나
- 04 4월 정례회의
- 06 **현지포럼** 한·미얀마 금융협력포럼
6월 정례회의
- 07 **초청연수** 미얀마 계획재무부 차관 초청 및 한·미얀마 금융협력세미나
세미나 한·미얀마 금융협력 세미나
7월 정례회의
- 08 **초청연수** 태국 재무부, 중앙은행, 신용보증공사, 과기부 소속 공무원 초청
세미나 한·태국 금융협력 세미나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 (OJK)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세미나
- 09 9월 정례회의
- 10 10월 정례회의
초청연수 이란 재정경제부, 증권위원회, 예탁결제원 초청
세미나 한·이란 금융협력 세미나
- 11 11월 정례회의
- 12 **국제포럼** 제3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12월 정례회의

- 01 부서장급 사전회의
- 02 2017년 정기총회
- 03 3월 정례회의
강연 기획재정부 박종근 국장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방향'
강연 법무법인 태평양 김영모/양은용 변호사
'동남아 주요국가 금융기관 인허가제도'
- 04 4월 정례회의
- 05 **토론회**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위원회 · 해금협 공동 토론회
공동연수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협회
5월 정례회의
- 06 **초청연수** 베트남 중앙은행, 재무부,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초청
세미나 한·베트남 금융협력 세미나
세미나 베트남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동향 세미나
간담회 금융인프라 수출 간담회
6월 정례회의
- 07 **공동연수** 신용보증기금 · IBK기업은행
현지포럼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 08 반기보고서 발간
- 09 **현지포럼**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워크샵 중소기업금융 워크샵

2017

생반기 주요사업보고

CIFC BiAnnual

공동 패널 토론회

2017년 아태지역 경제사회 보고서: 한국의 관점

해외금융협력협의회(CIFC)와 유엔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 위원회(UNESCAP)는 2017년 5월 12일 은행회관 국제 회의실에서 '2017년 아태지역 경제사회조사'의 주용 내용을 소개하고 동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관점' 및 '경제성장과 금융인프라 강화가 아태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공동 패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녹색기술센터 소장, 파푸아뉴기니 대사, 엘 살바도르 대사 등 국제기구 및 외교 사절단이 다수 참석했으며,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최선준 팀장, 신용보증기금 이종구 팀장, 예금보험공사 오승곤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참석했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순희 교수가 사회자로 참석했다. '2017년 아태지역 경제사회 조사' 주요결과 발표를 맡은 라자로 경제 담당관은 아태지역의 경제 발전은 어느 정도 완만하고 지속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평가했으며, 거버넌스의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성에 있음을 지적하고 단지 경제성장 보다는 사회적 포용성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도 아태지역 경제사회 조사'에 대한 한국의 관점을 발표한 박성욱 연구위원은 한국금융연구원의 2017년도 GDP 성장률 추정치를 작년과 같은 2.8%로 발표했으며, 사드와 한-중 관계,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북핵, 트럼프 대통령 등을 한국이 당면한 단기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박노욱 소장은 공공재정운영개혁의 현 문제점으로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비효율성, 의사결정의 부재 등을 꼽았으며, 정부 내의 인사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FMIS를 통한 분기별 프로그램 성과정보 사용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경제성장과 금융인프라의 강화가 아태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 패널토론 세션에서 첫번째 발표를 맡은 최선준 팀장은 인터넷 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소개했다. 두번째 발표를 담당한 이종구 팀장은 중소기업들

의 금융지원 접근성에 대한 강연을 마친 뒤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민간금융 부문은 충분히 개발되기까지 대체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당국들의 중소기업들이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려면 정부가 민간금융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아태지역 내 중소기업 발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자였던 오승곤 박사는 예금보험공사의 글로벌 지식공유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과거 몽골과의 지식공유사업 경험을 공유했다.

09:00-09:10	개회사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킬라파르티 라마크리쉬나 동북아시아사무소 대표
09:10-09:20	환영사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신성한 의장
09:35-09:55	'2017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사회조사' 주요 내용 발표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도로시 라자로 동북아시아사무소 경제담당관
09:55-10:40	'2017년 아태지역 경제사회조사'에 대한 한국의 관점 [발표1] 2017년 한국의 경제전망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연구위원 [발표2] 공공재정운영개혁의 현 문제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소장
10:55-11:40	경제성장과 금융인프라의 강화 : 아태지역에 미치는 영향 [발표1] 인터넷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소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최선준 팀장 [발표2]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기금 이종구 팀장 [발표3] 예금보험공사의 지식공유사업(KSP) 경험 소개 예금보험공사 오승곤 선임연구위원
11:40-12:00	질의응답

Dr. Kilaparti Ramakrishna
Director and Head ESCAP East and North-East Office

킬라파르티 라마크리쉬나 동북아시아사무소 대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Q '2017년 아태지역 경제사회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공동 토론회'를 주최하는 주요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A 이번 행사의 목적은 UN의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에 맞춰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 활력을 유지 및 확대하면서 발전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것을 목표로 하는 '2017년도 UN 아태지역 경제사회조사'의 주요 내용과 정책안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이어진 공동 토론회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현 문재인 정권에서 부각 및 우선시되고 있는 거버넌스와 포용경제와 관련한 이슈사항들을 재조명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경험을 토대로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 및 금융 인프라 강화에 있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Q ESCAP의 관점에서 '2030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SDG)'를 달성하는데 있어 민간 기업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민간부문은 생산과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활성화시켜 지역적 융합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녹색성장 등 사회적 웰빙과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태지역 내 국가들은 정부 간 공적개발원조와 기술지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을 민간기업들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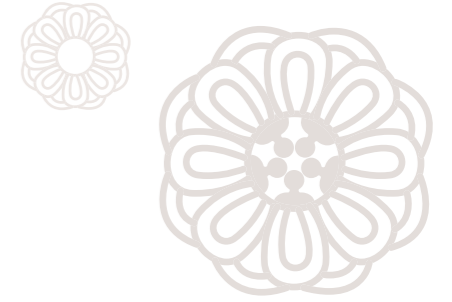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2030 의제를 지원하는 경제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ESCAP이 최우선시하는 사항 중 하나는 민관협력(PPP)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SCAP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Global SDG Compass Initiative'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간회사들의 전략을 연관된 SDG와 제휴시켜 그 효과를 측정 및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ESCAP의 'Sustainable Business Network Task Force on Banking and Finance'팀에 의해 개발된 'Responsible Business Model 2.0'은 민간회사들의 SDG 참여를 촉진하고 글로벌 과제를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체제입니다. 이 모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관행을 통해 은행, 금융기관 및 관련 지역경제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Q ESCAP과 CIFC의 잠재적 협력 관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CIFC와의 협력이 ESCAP의 사업 방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SCAP은 CIFC와 회원사들이 해마다 국제금융협력 포럼 등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해외사업의 모범규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KSP사업 등을 통해 부각되고 있는 한국의 개발협력에 대한 열정과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향후 ESCAP의 2030 의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CIFC와 개발금융 부문에서 협력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ESCAP과 CIFC는 다가오는 9월에 방콕에서 SME 파이낸싱 워크숍을 개최하여 고위정책대화 및 역량강화연수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공동 패널 토론회

2017년 아태지역 경제사회 보고서: 한국의 관점


2017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사회조사

도로시 라자로 동북아시아사무소 경제담당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도로시 라자로 경제담당관은 아태지역의 경제 발전은 어느 정도 완만하고 지속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및 지역적 성장동인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라자로 경제담당관은 ASEAN-호주-뉴질랜드 FTA (AANZFTA) 지원팀 팀장 및 프로그램 진행자, 아시아개발은행 무역 및 법률 컨설턴트 및 필리핀 개발학연구원 연구분석가로 활동하였다.


'2017년 아태지역 경제사회조사'에 대한 한국의 관점



**박성욱 거시경제연구실 실장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실장은 '2017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국내의 경제 성장의 주요 위험요소를 설명했으며,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통화, 재정, 거시건전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성욱 실장은 금융위원회 자문관, 한국증권금융 경영자문위원, 국제금융센터 EWS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박노욱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소장은 '한국 공공재정운영개혁의 현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했다. 이날 발표에서 박노욱 소장은 한국의 공공재정운영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하고 앞으로 직면할 도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박노욱 소장은 성과관리센터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06년도 기획예산처 장관 표창을 수여 받은 바 있다.


'경제성장과 금융인프라의 강화: 아태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의 관점' 패널 토론



**최선준 해외사업팀 팀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최선준 팀장은 '인터넷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소개했다. 온비드는 캡코의 공매 노하우와 첨단 정보화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매정보를 통합하고, 인터넷에서 직접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국내 최고의 공매포털시스템이다.


최선준 팀장은 현재 금융투자관리부 해외사업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투자금융부 해외사업팀장, 해외사업팀 수석연구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종구 국제업무팀 팀장
신용보증기금**

이종구 팀장은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및 한국의 신용정보 인프라, 신용보증제도, 신용리스크관리 모델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용보증기구 현황, 당면과제, 해당 국가들이 한국의 경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등을 설명했다.

이종구 국제업무팀 팀장은 1997년 신용보증기금 입사 이후 20년간 근속해오고 있다.



**오승곤 예금보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예금보험공사**

오승곤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지식공유사업(KSP) 경험'을 소개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KSP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사업의 구성, 단계, 해외수요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2010년 정부의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시스템을 설립한 몽골사업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였다. 오승곤 박사는 산업은행에서 연구분석 업무를 담당했으며, 2008년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고려대, 숭실대 등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을 가르치고 있다.

베트남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Knowledge Exchange Initiative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4박 5일간 한국의 금융산업 노하우 전수 및 양국의 금융제도와 규제, 인허가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 재무부, 과학기술부 소속 베트남 고위공무원 20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베트남 연수단은 해금협과 금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를 시작으로 한국신용정보원,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나이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7개의 해금협 회원사를 방문해 각 기관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 해금협 신성환 의장 (앞줄 왼쪽 네번째), 베트남 중앙은행 은행감독국 응웬 쑹 즈엉 (Nguyen Cong Duong) 국장 (앞줄 왼쪽 다섯번째), 금융위 서재홍 국장 (앞줄 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 참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guyen Cong Duong
Director General Banking Supervisory
Agency of State Bank of Vietnam
and North-East Office

베트남 중앙은행 은행감독국 국장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

2017년 6월 13일(화)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는 베트남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서 한국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해금협 회원기관을 베트남 연수단에게 소개했다. 2016년 '금융 인프라 발전과정 및 경쟁력 평가' 영역에 참여한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와 '금융위기 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성과' 영역에 참여한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선임연구위원은 영역 내용을 바탕으로 해금협 회원기관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했다. 나아가, 베트남 연수단 대표 은행감독국 국장과 신용정보 담당자는 베트남의 은행감독 제도 및 신용정보시스템을 소개했다.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에 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연수단을 대표해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참여 회원기관 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신용정보인프라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Q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 발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아무래도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미흡한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의 선진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한·베트남 협력관계에 가장 필요한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지 25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입니다. 25년동안 한국과 베트남은 꾸준히 관계를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MOU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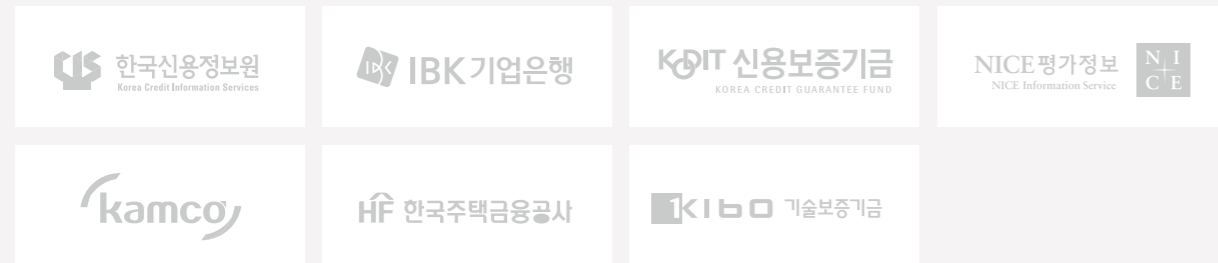
- 10:00-10:10 **환영사**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신성환 의장
- 10:10-10:20 **축사**
금융위원회 서재홍 국장
- 10:20-10:30 **포토세션**
- 10:30-11:00 **한국의 신용정보 인프라**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
- 11:00-11:30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선임연구위원
- 11:30-12:00 **베트남 은행감독국 소개**
베트남 중앙은행 응웬 쑹 즈엉 국장
- 12:00-12:15 **베트남 신용정보시스템 소개**
베트남 중앙은행 응웬 티 쉘 쉘 사무차

베트남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 내방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7년 6월 13일(화)부터 15일(목)까지

베트남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과정으로 회원 금융기관 내방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6월 13일(화) 14:00~16:00

한국신용정보원은 2017년 6월 13일(화) 오후 은행회관 14층에서 베트남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를 준비한 신용정보부는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역할을 소개하고 한국의 신용정보 관리 체계, 기술금융 및 기술 정보데이터베이스(IDB)에 대해 강의했다.



2017년 6월 13일(화) 16:00~18:00

기업은행은 2017년 6월 13일(화) 오후 기업은행 본점에서 베트남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는 중소기업금융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었다. 한국 중소기업 경제 전망, 기업은행 소개,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2017년 6월 14일(수) 10:00~12:00

신용보증기금은 2017년 6월 14일(수) 오전 서울사무소에서 베트남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는 총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용보증제도 설명, 신용보증기금의 운영과 성과, 창업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베트남의 신용보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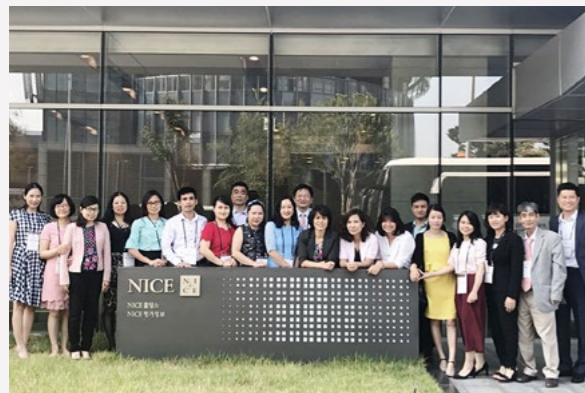



NICE 평가정보
NICE Information Service



2017년 6월 14일(수) 14:00~16:00

나이스는 2017년 6월 14일(수) 오후 나이스데이터빌딩에서 베트남 연수를 진행했다. 나이스 해외사업팀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통한 신용인프라 구축,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에서 신용인프라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으며, 나이스 그룹 및 신용정보사업 서비스, 대 베트남 투자 및 협력 현황 등을 소개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2017년 6월 15일(목) 14:00~16:0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7년 6월 15일(목) 오후 부산소재 공사 27층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를 준비한 주택금융연구원, 유동화증권부, 신탁자산부 등은 공사소개 및 보증업무, 주택연금 소개, 유동화업무 소개 및 유동화증권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kamco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2017년 6월 15일(목) 10:00~13:0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17년 6월 15일(목) 오전 부산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연수를 진행했다. 캠코 해외사업부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규모 부실채권 인수·정리를 통한 위기극복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경제 취약 부문의 회생을 돕는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온비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노하우 등에 대해 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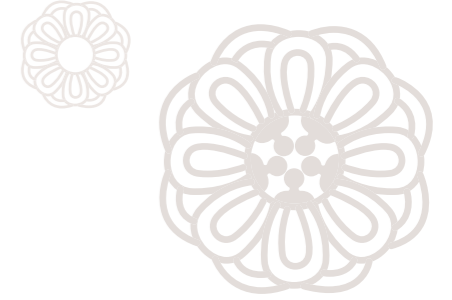

KIBO 기술보증기금

2017년 6월 15일(목) 16:00~18:00

기술보증기금은 6월 15일(목) 오후 부산 소재 본사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를 준비한 국제협력실은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을 소개하고 자본금 출연 및 업무감독 체계, 주요 업무 및 주요 보증상품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대표적인 기술평가모형인 KTRS(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의 구조, 평가 지표, 평가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베트남 주택금융시장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황재훈**

Q 주택금융공사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공사의 미션은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공사는 국민의 생애 주기에 맞는 금융상품을 설계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보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책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하여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를 통해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장기고정금리형 주택금융시장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택연금을 소개했는데,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정부정책 상품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약 80%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베트남의 주택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A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기준금리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금융을 지원받아 주택을 장만하려면 기준금리가 낮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기준금리가 약 6% 대로 형성되어 있어 타 동남아 국가보다 기준금리가 현저히 낮아 주택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택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까요?

A 먼저 정부 주도로 정책모기지(장기고정금리대출)를 공급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대출을 공급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업무 처리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수신 중심의 1차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금을 은행에 장기 예치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단기변동금리대출을 공급하기 때문에 1차시장에서 2차시장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 주도하에 정책모기지를 공급하여 베트남 주택금융시장이 장기고정금리대출시장으로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주도의 장기고정금리대출시장이 형성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주택가격의 변동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시중은행도 정책모기지 금리보다 높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낮은 금리에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월 대출의 원금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주택금융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즉 정부는 주택금융 정책을 떠나가는데 시장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한국의 사례로 비추어 볼때 장기고정금리대출시장으로의 전환에 있어 시장의 참여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때 정부는 장기주택금융정책을 집행할 산하기관을 설립하여 공사법을 제정하고, 시중은행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장기고정금리대출을 공급하고 이를 공사가 유동화시킬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Q 베트남과 주택금융협력을 진행하면서 고려해야 되는 베트남과 한국의 사회·경제적 차이점과 그에 따른 다른 시스템 조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한국과 베트남은 주거형태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베트남 주택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과 함께 공급주택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주택가격 수집 및 주택가격지수 개발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은 인구의 70%가 대가족, 30%가 핵가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에서 대가족 전체가 살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핵가족을 구성하는 가족들도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늙고 쇠약해지면 한국처럼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집에서 모시기 때문에 대가족을 형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경우 60%가 다가구나 빌라 형태의 거주가 일반적입니다. 베트남의 주거형태는 한국의 1980년대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 건설사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한국형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추후 베트남의 부동산시장과 주택금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주택금융은 이미 2차 금융시장이 상당 부분 발전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1998년 자산유동화법을 제정하여 유동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 20년간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베트남은 과거 한국이 주택금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처럼 목돈을 모아 집을 구입하는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주택금융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내에 적용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의 주택금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베트남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Q 베트남에서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기관을 설립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공사 설립과 관련해선 어떤 부탁드립니다.

A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국내에 장기주택금융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건설교통부 중심이 되어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미국의 Fannie Mae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주택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공사의 설립과 함께 주택저당채권유동화법을 수정 보완하여 공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사는 자체적으로 조달한 기초자산을 토대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었으며, 시중은행과의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2012년부터 시장유동화가 추진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즉 정부, 공사, 시중은행이 삼위일체가 되어 장기주택금융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 정부는 시중은행의 장기고정금리대출 취급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공사는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인수하여 MBS를 발행하고 유동화한 현금이 시중은행에 직접적으로 공급되는 등 저리의 장기주택담보대출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기준금리가 6%대이기 때문에 2차 시장에서 주택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장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베트남 내에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MBS 투자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 시장 참여자들 간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동향 세미나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베트남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의 일환으로 주호치민 총영사관 윤병원 영사를 초청해

'베트남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7년 6월 12일(화) 오후 2시 한국 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동 세미나는 27개의 국내금융기관 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병원 영사는 베트남 경제동향, 베트남 금융산업 현황,

국내 금융회사 베트남 진출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01 국가개요

국가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면적

330,951 Km² (한반도의 1.5배)
남북1,650Km, 해안선 3,200Km

기후

남부: 열대성 기후, 우기 건기
북부: 아열대성 기후, 4계절

인구

9,342 만명 (2014.7), 킨(Kinh)족 : 89%
화교: 약 100만명, 재외동포 약 350명

언어

베트남어
문맹률 : 2.9% (15-60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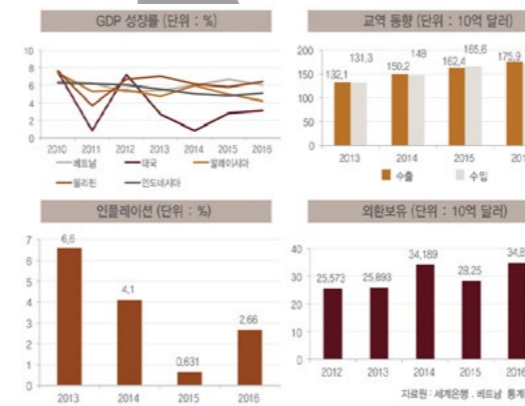
종교

불교, 카톨릭, 카오다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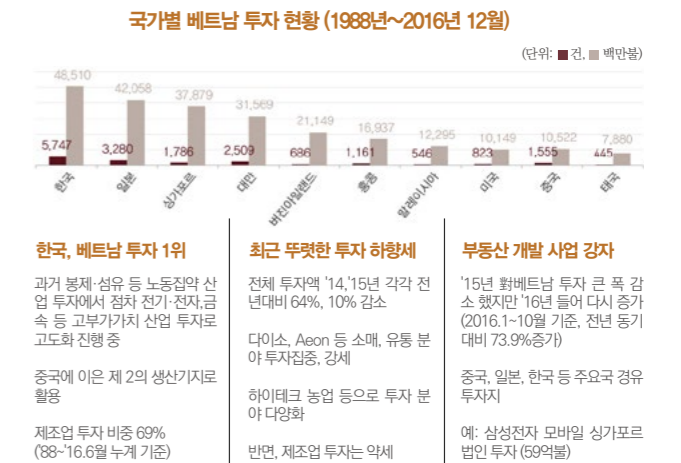
정치체제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
공산당 : 국가 /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

02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03 베트남의 주요 투자 진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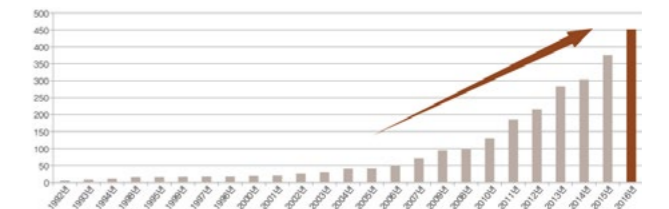


04 연도별 한·베 교역 추이

92년 한·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교역규모 90배 이상 성장

- 교역 규모 추이 : 5억 불 (1992년) → 470억 불 (2016년)
- 2016년 베트남은 한국의 아세안 제 1위 교역 대상국
- 2016년 아세안 교역규모 순위 (억 불) :
① 베트남 (470) ② 싱가포르 (176) ③ 말레이시아 (167)

한·베 교역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기고

우리 금융회사의 對베트남 진출 환경 및 향후 전망

주호치민 총영사관 금융관 **윤병원**



최근 국내 1호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경방이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경제관련 뉴스를 클릭할 때마다 국내 제조업체와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 또는 현지 베트남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력 관련 뉴스가 눈에 자주 띈다.

지난 2월 베트남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기 전까지 필자에게는 거의 눈에 띄지 않던 뉴스들이다. 사실 베트남에 대해 그간 너무 모르고 살았다. '베트남 전쟁', '쌀국수', '찌는 듯한 더위' 정도만이 베트남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였다.

막상 이곳에 와 근무를 해보니 한국과 베트남간의 교류·교역규모가 실로 놀라운 수준이다. 우선 한국 체류 베트남인 및 베트남 체류 한국인의 숫자는 각각 1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자녀의 수는 6만 여 명에 육박하며 이곳 호치민에만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 및 자녀의 수를 3,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하늘길은 호치민의 경우에만 직항 기준 하루 10편이 넘고 하노이, 다낭 등을 포함할 경우 하루 직항만 20편을 넘는다.

양국 간 교역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제1위의 교역 대상국이며 그 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90배 이상 성장하여 2016년 말 기준 470억 불에 달하고 있다. 베트남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은 3위의 교역국이다. 베트남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부문에서도 한국은 계속하여 1위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5,773건, 506억불 규모로 베트남 전체 FDI의 17%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베트남 거시경제가 흔들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실제 베트남 북부지역에 휴대폰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산출액이 베트남 GDP의 10%를 상회하며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넘게 차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필두로 현재 약 4,200여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며 이곳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만 2,700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활발히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거래기업의 베트남 진출 러쉬에 따라 현재 국내 은행 중 외국계 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내 은행이 이곳 베트남에 진출해 영업하고 있다.

우선 베트남이란 국가 자체의 한국과의 유사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孝'를 중시하는 유교문화, 젓가락으로 대변되는 뛰어난 손재주, 부지런함, 몽고반점, 심지어 끝장을 보는 음주문화까지도 한국과 상당히 닮아 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거시경제 및 투자 환경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은 인구 1억, 평균 연령 29세의 젊은 나라다. 고령화가 한창 진행중인 서구 선진국과 달리 어딜 가도 젊은이들이 넘쳐난다.

경제 성장률은 최근들어 꾸준히 6%를 상회하고 있으며 물가 또한 안정적이다. 금년의 경우 상반기 성장률이 5.73%를 기록하였으나 성장률 목표 6.7%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감안할 때 금년도에도 6%대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

다. WB, ADB, IMF의 장기전망도 6% 중반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사드 등 정치적 문제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의 투자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베트남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투자 유치 정책으로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와 치안이 안정되고 항만, 도로 등 인프라도 날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 日新又日新, 조금 과장하자면 자고 일어나면 길과 교량이 개통되고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해외진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베트남과 같은 역내 신흥국은 중요한 진출 대상 국가이다. 사실 금융의 역사가 100년이 넘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 금융회사의 진출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다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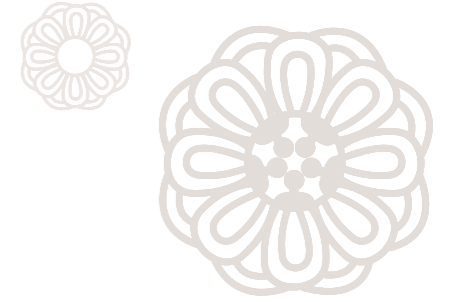
그런 측면에서 이곳 베트남은 우리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흰색 도화지와 같은 곳이다. 향후 노력하기에 따라 그 어떠한 그림도 그릴 수 있다. 베트남 제1의 은행, 보험, 증권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우선 한국 드라마, 가요, 화장품, 진출기업의 현지인 고용 및 각종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 등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에 대한 호감도 및 이미지가 최상급이다. 실제 베트남에서 생활하다 보면 현지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체감할 만한 수준으로 높다.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해야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이보다 우호적인 여건은 없을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달러화를 금고에 넣어 보관하는 것을 최고의 재테크라 여기는 사람이 다수이며 30%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지 계좌 보유율, 지속되는 경제성장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베트남 금융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현지의 규제 및 감독 수준이 아직 투명하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 현지의 규제현실을 대변해준다. 최근 자금세탁(AML) 및 개좌개설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정확히 어떤 경우가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감독당국에 문의를 한다 해도 대부분 묵묵부답이다. 현재 KB 하노이 지점, 대구은행 호치민 지점이 인가서류를 제출하고 당국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정확한 인가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최근 전언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이 영업점 신규 인가보다는 베트남 내 부실한 현지 금융회사의 인수를 제안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베트남에 추가적인 진출을 기획하고 있는 우리 금융회사들도 다양한 진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느 경우이든 해외진출이라는 시류에 이끌리기보다는 명확한 비전과 긴 호흡을 지닌 채 철저한 현지화 전략만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해외금융협력협회(CIFC)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6일(목)까지 4일간 약 50여 명의 한국 금융방문단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하여 은행연합회(KFB), 몽골은행협회(MBA)와 공동으로 7월 4일(화) 한·몽골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유광열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신성환 해외금융협력협회의장,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 금융방문단과 몽골은행협회 Orkhon Onon 회장, 몽골 중앙은행 Erdembileg Ochirkhoo 수석 부총재 등 몽골 현지 금융기관 관계자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발표 및 패널토론은 영어와 한·몽골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① 핀테크 트렌드, ② 리스크 관리제도, ③ 금융인프라, ④ 지급결제와 자본시장 등 4개의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운영하여 양국 간 다양한 금융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 금융방문단은 포럼 익일에 몽골 중앙은행과 몽골 최대 민영은행인 칸은행(Khan Bank)을 방문해 양국 금융회사의 상호진출방안 및 금융산업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해금협 회원기관의 활약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선임연구위원과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이 기조연설자로 발표하고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장인 김정환 선임연구위원이 오후 패널토론 세션의 사회를 보는 등 한국금융연구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더불어 8개의 회원기관에서(금융결제원,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KCB, NICE) 패널발표자로 참여하여 각 기관의 업무특성과 장점 등을 소개하고 한국 금융인프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전파했다.

몽골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한국측 발표자들을 찾아가 질문을 이어가는 등 열정을 보였으며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NICE, KCB 등은 포럼에 현지 사업파트너를 초대하여 네트워킹 기회를 유용하게 활용한 의미있는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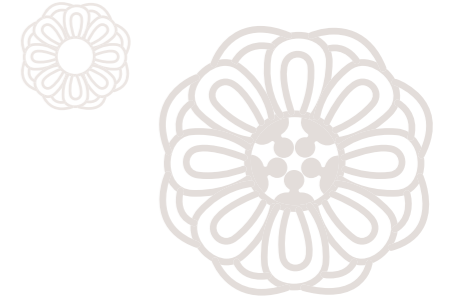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이번 포럼은 이례적으로 몽골 금융전문잡지에도 비중있게 소개되고 현장에서 현지 방송사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할 만큼 큰 관심을 받았고 사전신청자 참석률이 99%에 육박한 매우 성공적인 행사였다. 오전 세션 뿐만 아니라 오후의 브레이크아웃 패널토론 세션까지도 높은 참석률과 적극적인 참여율을 자랑했다. 포럼이 22명의 발표자 및 패널토론자로 구성되어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들의 역량과 실무진의 노력으로 관객들과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었고 일정에 차질 없이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오후 세션

해금협 발표자 발표내용 요약



01 핀테크 트렌드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소기업 촉진을 위한 정책 은행의 역할
IBK기업은행 백상현 팀장

제1장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정의와 한국 전체 기업수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및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하여 설명. 제2,3장에서는 국가경제 위기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당행 소개와 당행의 중소기업금융 노하우(신용평가시스템, 금융/비금융서비스 등)에 대하여 설명.



기술보증기금의 창업기업 혁신지원제도
기술보증기금 김종현 차장

한국 은행산업의 경영현황과 이슈들을 살펴본 후 2017년 경영여건과 경영성과를 전망함. 이러한 현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 은행산업의 경영과제를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제시함. 첫째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고, 둘째 규제 강화와 경제여건 불확실성에 대비한 자본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며, 셋째 자산관리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전략 다양화 등으로 영업기회를 발굴하여야 하며, 넷째 비대면채널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높이고 경직성 경비 구조를 개선하여 비용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02 자금결제 & 자본시장



한국의 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 고해록 팀장

금융결제원은 국내 전 금융기관이 연계된 지급결제기관으로서 2016년 기준일 평균 34백만건, 825억달러를 처리하였으며, 금융결제원을 통한 은행 간 자금이체는 수취계좌 즉시조회, 실시간 이체, 한국은행을 통한 참가기관 간 일별 차액결제를 특징으로 함. 한국은 몽골의 은행 간 자금이체, 자동이체, 개인과 기업(기관) 간 대량 자금이체시스템 구축 부문 등에서 상호 협력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예탁결제 업무의 진화
한국예탁결제원 안병욱 차장

중앙예탁기관(CSD)의 역할 및 CSD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발표. CSD의 업무 다양성에 대한 국가 간 비교,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KSD의 업무다양성 소개, KSD의 해외사업 개요 등에 대해 설명함.

03 금융 인프라



신용정보인프라와 민간 CB의 역할
KCB 채민숙 차장

신용정보인프라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건전한 금융시스템의 핵심적 요소임.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다양하게 발전해온 신용정보인프라의 주요 발전 형태와 특징을 알아봄.

또한, 공적신용정보집중기관과 달리 신용스코어 등 다양한 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 등 신용공여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민간 CB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사례를 통해 몽골 신용정보시장의 발전방향을 제시함



한국의 주택 및 주택금융관련 공사의 역할
주택금융공사 황재훈 팀장

과거 한국의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하여 지속적인 대출재원을 공급하고자 정부는 2004년 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였음.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어떻게 정책모기지상품을 개발하여 MBS 기초자산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였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정부가 가계부채 개선 및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대출 확산을 위해 도입한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등의 모기지 정책에 대해 발표함.



한국의 신용인프라
NICE 이정재 과장

NICE 그룹은 금융정보와 금융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컨설팅, 솔루션, 통합 지불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한국의 신용정보구조는 공공신용정보기관과 민간 CB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인 신용정보인프라가 구축됨.



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 방법
신용보증기금 이태현 차장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40여년 간 변함없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신용평가시스템(CCRS)에 기반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였기 때문임. 신보의 CCRS는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부실률을 5% 이하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또한 UNIDO는 신용보증 공급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모델의 결합은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평가모델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음.



몽골 Xac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

Bold Sandagdorj와의 인터뷰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몽골 금융협력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한·몽골 금융협력포럼은 글로벌 거시금융관련 이슈 뿐만 아니라 은행산업의 중요한 개발 트렌드인 핀테크와 같은 세부적인 주제도 논의할 수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간 금융교류가 활성화되고 향후 유사한 교류·협력의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되어 투자,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Q 현재 몽골의 상황과 20년전 한국이 경험한 외환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몽골의 장·단기적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A 아시아 외환위기 때 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대만을 포함한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회생, 부채 감소, 외화유동성 개선, 외환시장의 안정, 그리고 심각한 지역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997년, 한국 경제는 수출 하락과, 단기적 대외부채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일어난 쇼크에 의해 경제하락과 금융업계의 자산건전성 악화를 경험했습니다. 2012년에서 2016년도까지 몽골 경제는 엄청난 외부 쇼크를 맞이했습니다. 수출은 급격히 하락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년만에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4년간의 경제후퇴와 금융위기를 일으켰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당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2017년 몽골의 경제위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은 쇼크가 경제를 뚫고 지나가는 와중에 IMF 프로그램을 실행한 반면 몽골은 이미 몇몇 주요 거시적 조정이 이루어진 뒤에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은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도달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치였던 7~8%보다 훨씬 안정적 수치로 내려간 2017년 5월, IMF의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지출삭감을 위한 예산개혁, 재정 강화, 교과서적 국공채 관리와 경제적 자신감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2017년 5월 IMF 프로그램을 시행할 당시, 몽골경제는 이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안정성장 진입 시기에 도달했었고 국제수지가 재조정되며 근본적인 외환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통화유동량 수축과 외환시장의 안정은 더이상 문제점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몽골은 이미 전부터 주요 거시적 기반을 서서히 조정하면서 금융 및 그 외 업계를 구조조정하였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될 IMF 프로그램으로 인해 대량실업, 심각한 기업손실 등의 심각한 사회적 충격은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몽골 당국은 앞으로 대외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치적인 정책변화로 경제를 완전히 회생시키기 위한 헌신과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투자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합의되고 공인된 정책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몽골이 앞으로 공공부문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수출 및 산업 다각화를 실현시킨다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몽골 Khan Bank 재무팀장

Erdenedelger Bavlai 과의 인터뷰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몽골 금융협력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한·몽골 금융협력포럼이 양국의 금융협력 강화 및 상호금융기관 간 실질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이끈 매우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포럼은 핀테크 개발 트렌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금융부문 인프라 개발, 결제시스템 및 자본시장 등 양국의 다양한 경제 및 금융부문의 경험, 과제, 그리고 기회들을 공유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은행산업의 역사와 발전에 대한 발표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저는 현재 몽골의 은행들이 과거 한국 은행들이 경제난관을 극복하고 지금의 견고하고 신뢰받는 은행산업을 이룩한 경험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향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눈 여겨 보고 계신 한국 금융기관이 있으신가요?

A 개인적으로 은행산업에서의 협력이 가장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양국 은행들은 국제송금, 원조 관련 무역금융, 외환업무 분야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제가 포럼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몽골과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더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IFI의 단기무역융자, clean basis, K-sure coverage의 장기무역융자, 신디케이트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송금 및 카드 부문 등이 있습니다. 위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한 공동 워크샵과 지식공유 프로그램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Q 장·단기적으로 보아 향후 몽골과 한국 간 금융협력 기회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A 현재 은행들은 급변하는 기술, 고객행동, 정부정책 등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지점 네트워크는 고객 서비스의 핵심채널이지만 최근 트렌드는 점점 지점의 영역을 벗어나 더 효율적인 디지털금융 채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몽골의 은행들은 디지털금융의 선구자인 한국 은행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전문지식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한국의 금융부문 인프라와 자본시장 개발 경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몽골의 국제, 주식, CD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한국 금융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견고한 금융인프라 개발과 결제시스템의 현대화는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자와 무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과정은 몽골과 한국의 지식 공유, 기술 지원 및 컨설팅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실질적인 금융협력을 위해 몽골과 한국이 넘어서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1990년 국교수립 이후 양국의 관계는 점점 견고해졌고 현재 한국은 몽골의 4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지금과 같이 양국 상호간에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의와 관심이 지속된다면, 금융협력 부문에서 몽골과 한국이 넘어서야 하는 큰 난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해외금융협력협회의 공동 초청연수 지원

해외금융협력협회의

회원사 간 공동연수 지원사업은 2개 이상의

회원사가 같은 시기에 해외사업(초청연수 등)을 진행하여

공동행사(연수, 세미나 등)를 개최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관별 개별 진행으로 인한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회원사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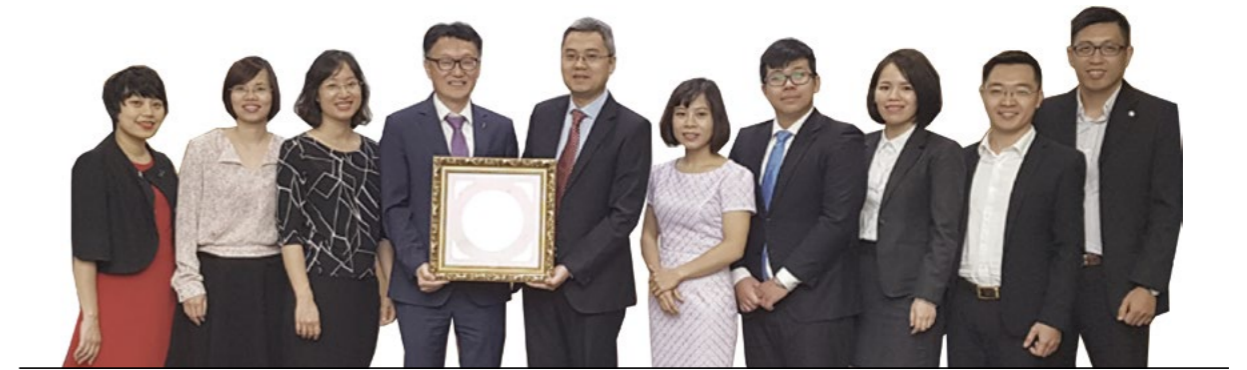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IBK기업

은행·신용보증기금 공동사업이 해금협 지원을 받았다.



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베트남 자본시장 관계자 초청연수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협회는 2017년 5월 22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4박 5일간 '한·베트남 펀드시장 상호발전을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베트남 예탁결제원 임직원 및 증권·운용사 직원 12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동 연수는 한·베트남 펀드시장 참가자 간 직접적 교류를 통한 양국 펀드시장 이해 증진 및 펀드관련 사업 확대기회 모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이 참여했다.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캄보디아 중앙은행 소속 공무원 초청연수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은 2017년 6월 25일(일)부터 2017년 7월 1일(토)까지 6박 7일간 캄보디아 중앙은행 소속 공무원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기업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신보의 동남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연수기간 동안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 및 신용보증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정례회의 및 간담회

01

정기총회 사전회의

일 시	2017년 1월 13일(금) 14:00~16:00
장 소	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여기관/인원	12기관 / 15명

2017년도 해금협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에 앞서 신규사업, 사업범위, 연회비 등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조율하기 위해 부서장급 이상 담당자 대상 사전회의를 개최함.

02

2017년 정기총회

일 시	2017년 2월 10일(금) 14:00~16:00
장 소	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여기관/인원	19기관 / 29명

2016년 해금협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017년 해금협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2017년 해금협 운영규정 개정안, 2017년 연회비 납부대상 기관 및 금액(안)을 의결하기 위해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함.

03

3월 정례회의

일 시	2017년 3월 17일(금) 14:00~16:00
장 소	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여기관/인원	16기관 / 24명

2017년 KSP 사업 운영방향과 동남아시아 금융업 인허가 제도 동향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을 청취하고 해외 금융협력지원센터의 주요행사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정례회의를 개최함

초청강연

첫 번째 초청강연 강연자로 초대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협력관 박충근 국장은 이날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충근 국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운영성과, 글로벌 환경 변화, 신흥국 경제협력을 위한 KSP 수행절차 및 신청방법을 설명했다. KSP는 2004년 출범해 2016년까지 59개국을 상대로 900여건의 양자 간 정책자문을 실시했으며, 2011년부터 5년간 89건의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박충근 국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KSP사업을 업그레이드하여 단순한 경제발전 경험 전수 뿐만 아니라 대내외 수요에 부응하고 사업품질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초청강연 강연자로 초대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영모, 양은용 변호사는 "동남아 주요국가 금융기관 인허가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미얀마,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은행, 증권, 보험, 마이 크로파이낸스 회사에 대한 인허가 담당기관, 외국인 지분제한, 주요 인허가 요건, 선례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04

4월 정례회의

일 시	2017년 4월 24일(월) 16:00~18:00
장 소	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여기관/인원	17기관 / 23명

2017년도 연회비 납부 영수증 전달 및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4월 정례회의를 개최함. 2017년 신규사업으로 5월 12일(금) 개최 예정인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해금협의 공동 토론회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금융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의 발표 참여 및 협조를 부탁함.

05

5월 정례회의

일 시	2017년 5월 26일(금) 16:00~18:00
장 소	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여기관/인원	17기관 / 21명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의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기타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5월 정례회의를 개최함. 2017년 6월 12일(월)부터 4박 5일간 진행 예정인 베트남 공무원 초청연수에 대해 설명함. 최종 연수단은 베트남 중앙은행, 재무부, 과학기술부 산하 NATIF, 중앙은행 산하 NAPAS 등 총 20명으로 확정됨. 이번 연수 참여기관은 한국신용정보원,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NICE평가정보, 한국주택 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임.

06

금융인프라 수출 간담회

일 시	2017년 6월 9일(금) 15:00~17:00
장 소	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주 재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

참석자 :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장, 금융인프라 수출 공공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
금융인프라 수출 간담회는 KSP/EDCF 등 ODA를 통한 금융인프라 수출 현황 및 애로사항, ODA 외의 수출경로 및 자체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도개선 또는 정부지원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해금협 회원기관 중 금융인프라 수출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인 기관의 부서장들이 참석하여 기관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발표함.

6월 정례회의

일 시	2017년 6월 23일(금) 16:00~18:00
장 소	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여기관/인원	16기관 / 23명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의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7월 4일 개최 예정인 한·몽골 금융협력포럼에 대한 최종 전달사항을 공지하기 위해 6월 정례회의를 개최함. 한·몽골 금융협력포럼을 위한 출장 일정 및 공지 사항, 한·태국 금융협력포럼(안) 등이 안내됨.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요 사업 일정

1 JANUARY							2 FEBRUARY							3 MARCH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5	6	7	8	9	10	11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12	13	14	15	16	17	18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19	20	21	22	23	24	25
29	30	31					26	27	28					26	27	28	29	30	31	

4 APRIL							5 MAY							6 JUN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1	2	3	4	5	6					1	2	3
2	3	4	5	6	7	8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9	10	11	12	13	14	15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16	17	18	19	20	21	22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23	24	25	26	27	28	29	28	29	30	31				25	26	27	28	29	30	
30						31														

7 JULY							8 AUGUST							9 SEPT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1	2	3	4	5						1	2
2	3	4	5	6	7	8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9	10	11	12	13	14	15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6	17	18	19	20	21	22	20	21	22	23	24	25	26	17	18	19	20	21	22	23
23	24	25	26	27	28	29	27	28	29	30	31			24	25	26	27	28	29	30
30	31																			

10 OCTOBER							11 NOVEMBER							12 DEC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1	2	3	4						1	2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3	4	5	6	7	8	9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10	11	12	13	14	15	16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17	18	19	20	21	22	23
29	30	31					26	27	28	29	30			24	25	26	27	28	29	30
																				31

주요사업일정 구분

- 정례회의
- 정기총회
- 토론회, 간담회
- 초청연수, 세미나
- 포럼, 워크샵

- 1.13 1월 정례회의
- 2.10 2017년 정기총회
- 3.17 3월 정례회의 & 초청강연
- 4.24 4월 정례회의
- 5.12 공동 패널 토론회
- 5.26 5월 정례회의
- 6.09 금융인프라 수출 간담회
- 6.23 6월 정례회의

- 6.12-16 베트남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 베트남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동향세미나
- 6.23 6월 정례회의
- 7.3-6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 8.25 8월 정례회의
- 9.25-29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중소기업금융 워크샵
- 12.4-6 제 4회 국제금융협력포럼

하반기 주요 사업 일정

09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 일 시** 9월 26일(화) 09:00~14:30
- 장 소** 태국 방콕
- 주 최** 해금협, 금융위원회, 태국재무부
- 참석대상** 태국 방콕 소재 해금협 사업파트너, 금융당국 및 소속 공무원, 해금협 회원사 등 100명

중소기업금융 워크샵

- 일 시** 9월 27일(수)~28일(목) 09:00~17:00
- 장 소** 태국 방콕
- 주 최** 해금협,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유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ADB, AFI
- 참석대상** 태국 방콕 소재 해금협 사업파트너, 금융당국 및 소속 공무원, 해금협 회원사

12

제 4회 국제금융협력포럼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Forum

- 일 시** 12월 5일(화) 09:00~17:00
- 장 소** 서울
- 참석대상** 해금협 회원기관 파트너 및 해금협 회원사 등

01
2018

CLMV* · 해금협 금융협력포럼

- 일 시** 2018년 1월중
- 장 소** 베트남
- 참석대상**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 및 임직원, 해금협 회원사 등



*C: 캄보디아, L: 라오스, M: 미얀마, V: 베트남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 비교적 후발개도국으로 분류되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4개국.

기고

한국거래소(KRX)의 캄보디아
증시설립사업 경험

한국거래소 팀장 김대천

CAMBODIA

I. 여정의 시작: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라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사업이 발달하고, 2006년 당시 10% 내외의 성장을 거듭하고 원유가 발견되는 등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금이 지하금융으로 흘러가고, 개인들이 예금보다는 현금을 선호하여 대규모 자금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도 경제발전을 위해 금융시장의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ADB의 도움을 받아 Financial Sector Blue Print(2006-2015)을 마련하여,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그 즈음에 캄보디아 정부는 2006년 ASEAN+3 의장직을 한국과 공동 수입한 것을 계기로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캄보디아 자본시장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기업들의 자금조달 및 정부의 재원확보를 위해 자본시장 개설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증권감독기구와 더불어 증권거래소 설립 지원을 우리 측에 요청하여 2006년 5월 양국 재정부간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는 2006년 11월 캄보디아 재정부와 합작으로 증권거래소를 설립하는 MOU를 체결함으로써 한국거래소 해외사업 여정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II. 캄보디아 사업의 주요 내용

1. 교육연수사업으로 증시전문인력 양성

2007년 5월 한국거래소는 KOICA와 캄보디아 증권전문

인력 양성교육 및 증권시장 제도 자문 수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업 초기 2년간 총 16회에 걸쳐 감독기구 및 거래소 핵심인력, 증시 종사자 등 연인원 1,800명을 대상으로 주식시장의 기초부터 시장운영에 이르는 자본시장 전반에 관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7년 및 2008년 두 차례 캄보디아 현지에서 증권시장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증권관련 종사자, 상장예정법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증시설립기반을 마련하고 증시설립을 홍보하였다.

2. 법제 컨설팅으로 증시인프라 구축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증권시장 법규, 시장운영, 감독 제도, 인프라 도입 등과 관련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총 9회에 걸쳐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의 내용은 증권거래법, 기업법 등 증시관련 법규 내용과 매매, 상장, 공시 등 증시 제도 등에 관한 부분이 주를 이루었고, 이와 더불어 2007년 7월에는 한국의 초기증시 육성을 위한 정책들, 즉 세금감면, 기업공개촉진법 등의 정책도 소개되었다. 또한 2008년 3월에는 증시인프라 구축의 핵심 중의 하나인 증시 감독기구 설립, 운영,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자문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8년 8월 증권시장 감독기구인 SECC를 발족하게 되었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동 감독기구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잠재적 투자자들이 증권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9년 8월 KRX는 동 감독기구와 자문계약을 통해 거래소 인력을 감독기구에 컨설턴트로 파견하여, 각종 인허가 규정 및 감독규정 등을 리뷰하고 조언해주는 등 증시인프라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캄보디아 재 정부는 KRX의 교육 및 자문에 대하여 캄보디아 증시설립을 위한 핵심전문인력 양성 및

증시설립 사업에 큰 기여를 하였고, 교육 내용 중 특히 OJT 교육을 통해 실무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효율적이었다고 하였다.

3. 합작계약 체결 및 증시인프라 구축 완료

2009년 3월 2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재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캄보디아 증시개설을 위한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다. KRX는 IT인프라를 구축하고 캄보디아 재 정부는 토지 및 건물을 출자하며, 캄보디아 재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캄보디아 증시시스템 등을 주식, 채권, 정보, 외국인, 예탁, 원장시스템 등의 구성으로 코스콤과 협력하여 유닉스 기반의 오픈시스템을 사용, 소형증권시장 공략용 종합 증권거래시스템을 구현하였다.

III. 캄보디아사업 수행의 어려움과
극복과정

1. 우수한 인력의 부족

캄보디아 교육·연수사업은 증권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트레이너를 교육하여 향후 교육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증권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무, 회계, 상법, 회사법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캄보디아 증시개설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금융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구사능력과 필요 배경지식을 가진 사람은 외국유학을 거친 고위직이 대부분이고, 실무진 중에는 필요 인원수가 부족하여, 초기연수에서는 지식 전달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대국 정부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후기연수에서는 핵심인력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자문사업의 한계

증권산업과 같이 새로운 사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마련해야 하는데, 특히 법의 경우 정부 간 조율, 국무회의, 의회승인 등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한국의 전문인력들이 증권관련 법령제정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자문을 했지만, 우리의 의견이 그대로 법령에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고, 자체 검토를 거쳐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자문사업이 단지 자문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와 자문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최종 동의 절차를 자문단과 캄보디아 정부가 해야 하기 때문에, 자문단의 자문이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법령 입안단계에서 하는 자문은 소기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자문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등을 파악하여 상대국의 니즈와 눈높이에 맞는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입안 초기보다는 상대국 정부도 예산 집행 필요 등으로 인센티브가 있는 단계에 참여하고, 현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잦은 일정변경 등으로 사업일정에 차질

캄보디아는 라오스보다 10개월 빨리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일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3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개발을 완료하였다. IT인프라

한국거래소(KRX)의 캄보디아 증시설립사업 경험



구축과 달리 증시시스템 개발을 중단했다가 재개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캄보디아 증권감독원(SECC)의 캄보디아 증시제도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이 지연되면서, 시스템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를 원활히 수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속한 증시제도 확정만이 해결책이라는 판단 하에 캄보디아 부총리를 접견하여, 증권감독원의 증시제도 승인 지연으로 증시 IT시스템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조속한 증시제도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실무자들도 수차례 현지 협의를 한 결과, 성공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4.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우리나라 기준에서 캄보디아를 보면 대체적으로 일처리가 느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지난하고 복잡하여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잦은 번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도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는 크메르 루즈의 대량학살에서 비롯된 상호 불신과 소송 불교문화의 후세를 믿는 종교관으로 인하여 다소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진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RX는 캄보디아 고유한 문화 특성을 이해하고, 현지 사람들과 동화되도록 담당 공무원의 경조사에 참여하고 캄보디아 언어와 역사를 습득하며, 담당 공무원 주관 행사에 적극 참여 및 기부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IV. 성공적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2007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0년간 다양한 해외

사업을 통해 다수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경험하였다. 여기서 모든 경험을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캄보디아 사업의 사례를 통해 현재 해외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기업들에게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어떤 해외사업을 추진해야하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각각의 기업에 맞는 핵심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답해보기를 권장한다. 우리 회사는 무엇을 수출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KRX는 처음에 언급했듯이 증시설립 자문, 증시인프라 수출, 증시인력 연수 등의 핵심사업을 보유하고 있었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베트남증시 설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모델을 IT시스템 수출, 증시 현대화, 증권시장 설립의 3대 핵심 모델로 정의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캄보디아는 증시설립사업으로 한국의 증시를 통한 경제발전, 베트남증시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정부를 통해 유사한 사업을 요청하였는데, 사업 초기만 해도 이익추구사업이 아닌 경험공유(Knowledge Sharing)와 후진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발하였다. 캄보디아 사업이 진행되자 이웃국가인 라오스정부도 요청해와 효율성 차원에서 2개의 사업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상품을 다른 시장에도 수출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이 외국정부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핵심 상품 및 사업을 보유해야 성공적으로 진행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수익사업으로 추진해야하는가? 수익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수익사업으로 처음부터 추진하기는 어느 기업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작은 식당을 오픈해도 처음

부터 수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데 하물며 해외사업을 처음부터 수익사업으로 하기는 쉽지 않으니 먼저 정부 간 MOU나 경험공유 차원의 사업을 수행하다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면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KRX 해외사업은 다년간 경험과 노하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서도 나스닥 등 경쟁거래소에 비해 Brand Power가 약해서 아시아나 중앙아시아를 벗어난 구미 선진국이나 중동 진출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험상 부유국가에서는 품질도 중요하지만 국제적 평판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셋째, 사업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되 조바심을 갖지 말고 장기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이다. 대부분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으로, 3년 이내에 성공적 사업수행이 안되면 포기하기 쉽다. 사업추진 단계서부터 계약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협상과정에서 인내심을 갖고 느긋하게 임해야 한다. 개발국과의 사업은 흔히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말이 정설이다.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부와 직접 또는 최소한 정부를 관여시켜서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과정이나 사업추진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하게 추진하지 말아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단기실적 압박과 조바심으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의 만만디 사업추진에 우리의 패를 먼저 보여주게 되면 계약이 불리하게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사업성과의 효과를 단지 그 핵심사업에서의 산출물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핵심사업의 수출대금으로 성과가 바로 나타나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금융공기업들의 해외사업은 대부분 결

음마 단계이므로 성숙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 경영자, 감독기구,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단기간의 성과지표를 단위사업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본다. 참고로 KRX 증시설립 추진과정에서 다수의 민간기업 동반진출, 수원국 정부의 일방적 비자 면제, 직항로 개설 등 편의증진, 정부 간 협력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분명하였으나,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정치적 평가는 단순히 사업투자로 인한 재무적 손익에만 집중하여 해외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실패한 사업에서도 분명히 양국관계의 증진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 다른 사업이나 민간협력의 발판이 되기도 하므로 우호적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기를 바란다.

2017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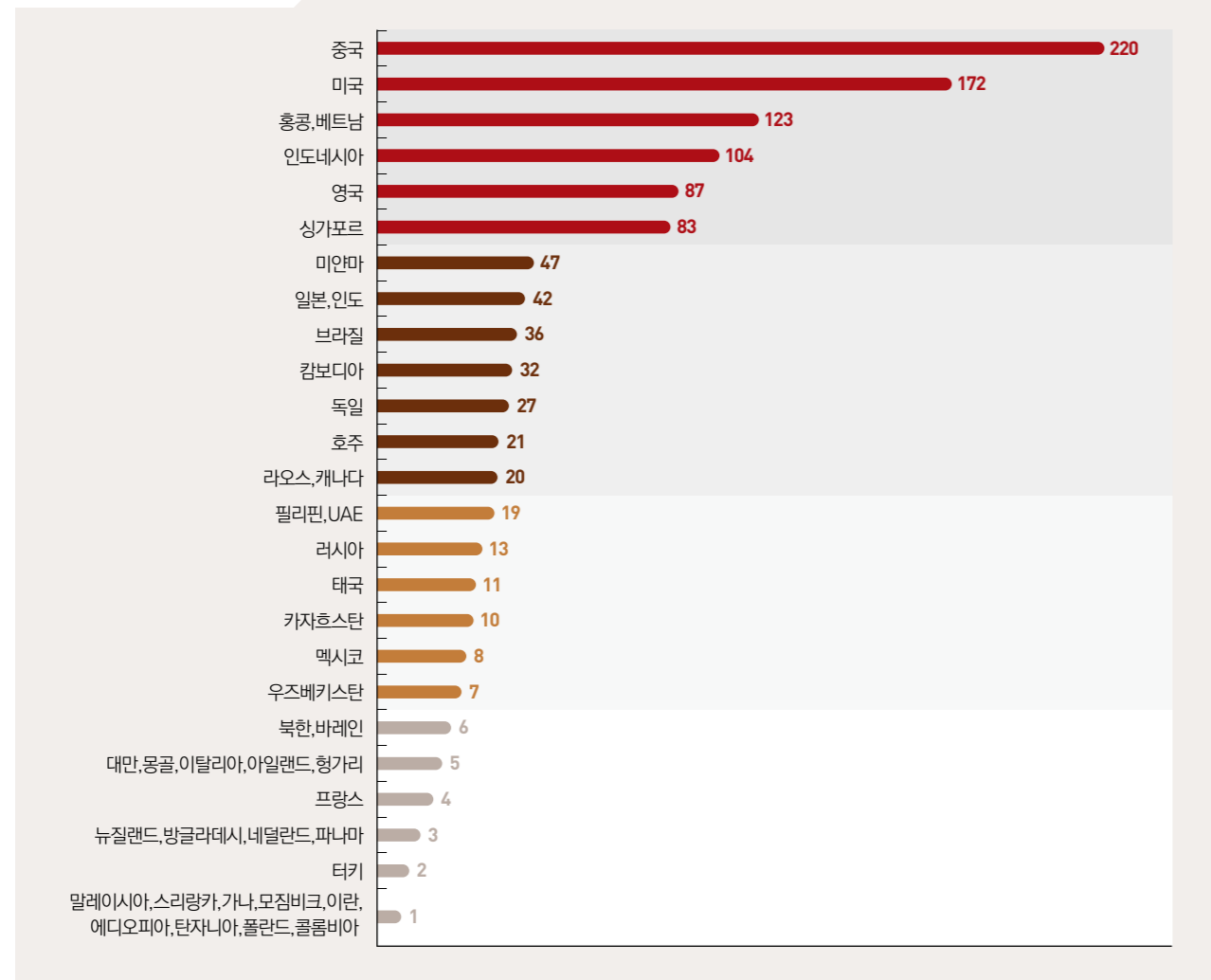
CIFC BiAnnual



금융회사 해외진출 집중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2017년 3월 말 현재 45개 국가에 진출하여 410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진출이 어느 국가에 집중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중치(현지법인 5점, 지점 3점, 사무소 1점)를 부여하여 집중도를 계산하였다. 해외진출 집중도는 최소 1점부터 최대 220점까지 분포하는데, 이를 사분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집중도가 높은 상위 1사분위는 레드, 2사분위는 브라운, 3사분위는 골드, 4사분위는 베이지로 표시하였다. 해외진출 집중도가 높은 국가는 경제성장이 빠른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홍콩 등 금융중심지 국가들이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집중도도 높게 나타난다. 반면, 동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집중도는 매우 낮아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진출이 초보단계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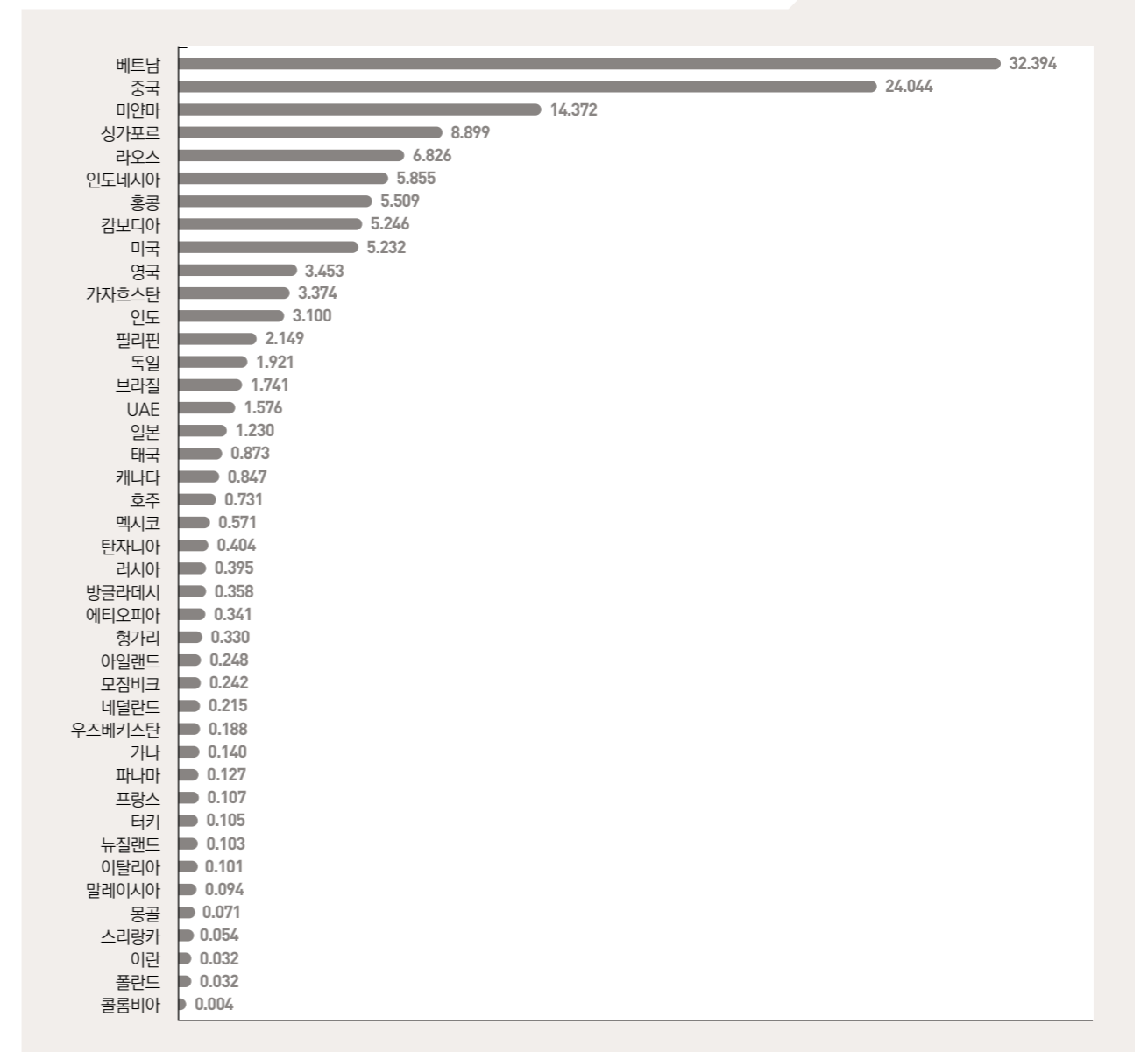
해외진출 집중도



주)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2017년 3월말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진출국 시장규모와 비교한 해외진출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출국의 성인 10만 명 당 상업은행 지점수 대비 해외진출 집중도를 계산하였다. 이를 전체 진출국 간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최근 수년간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몽골, 이란, 폴란드 등은 해당국 시장규모 대비 진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진출국 상업은행 지점수(성인 10만명당) 대비 해외진출 집중도



주) 성인 10만 명 당 상업은행 지점수는 World Bank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2015년 자료임. 영국은 2013년, UAE와 에티오피아는 2012년 자료이며, 북한, 바레인, 대만은 성인 10만 명 당 상업은행지점수가 제공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역별 형태

아래에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진출한 45개 국가를 해외진출 집중도에 따라 시각화하였다.
 앞서 제시한 사분위를 사용하여 진출국을 표시하였으며, 미진출국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해외진출 집중도가 높은 16개 국가를 선별하여 세부 진출형태를 표시하였다.

해외진출 집중도가 높은 16개 국가



부록

해외진출 집중도 상위 16개국의 업권별 진출형태

국가	구분	은행	생보	손보	자산운용	증권	여전	지주	점포수
중국	사무소	3	4	6	3	8	0	0	24
	지점	7	0	0	0	0	0	0	7
	현지법인	6	3	3	7	10	6	0	35
	합계	16	7	9	10	18	6	0	66
미국	사무소	2	4	5	2	0	2	0	15
	지점	8	0	5	1	0	0	0	14
	현지법인	5	2	3	5	8	0	0	23
	합계	15	6	13	8	8	2	0	52
홍콩	사무소	1	1	0	1	0	0	0	3
	지점	5	0	0	0	0	0	0	5
	현지법인	5	0	1	4	11	0	0	21
	합계	11	1	1	5	11	0	0	29
베트남	사무소	7	2	4	6	2	2	0	23
	지점	9	0	1	0	0	0	0	10
	현지법인	3	1	2	0	5	3	0	14
	합계	19	3	7	6	7	5	0	47
인도네시아	사무소	2	0	1	0	1	0	0	4
	지점	0	0	0	0	0	0	0	0
	현지법인	6	1	3	0	5	5	0	20
	합계	8	1	4	0	6	5	0	24
영국	사무소	0	3	3	0	1	0	0	7
	지점	5	0	0	0	0	0	0	5
	현지법인	2	1	3	2	4	1	0	13
	합계	7	4	6	2	5	1	0	25
싱가포르	사무소	0	0	0	0	0	0	0	0
	지점	5	0	1	0	0	0	0	6
	현지법인	0	0	2	3	5	0	3	13
	합계	5	0	3	3	5	0	3	19
미얀마	사무소	8	0	1	0	0	0	0	9
	지점	1	0	0	0	0	0	0	1
	현지법인	3	0	0	0	0	4	0	7
	합계	12	0	1	0	0	4	0	17
일본	사무소	1	2	2	0	3	0	0	8
	지점	6	0	1	0	0	1	0	8
	현지법인	1	0	0	0	1	0	0	2
	합계	8	2	3	0	4	1	0	18
인도	사무소	4	0	1	0	0	0	0	5
	지점	9	0	0	0	0	0	0	9
	현지법인	0	0	0	1	0	1	0	2
	합계	13	0	1	1	0	1	0	16
브라질	사무소	1	0	0	0	0	0	0	1
	지점	0	0	0	0	0	0	0	0
	현지법인	3	0	1	1	1	1	0	7
	합계	4	0	1	1	1	1	0	8
캄보디아	사무소	2	0	0	0	0	0	0	2
	지점	0	0	0	0	0	0	0	0
	현지법인	4	0	0	0	1	1	0	6
	합계	6	0	0	0	1	1	0	8
독일	사무소	1	0	1	0	0	0	0	2
	지점	0	0	0	0	0	0	0	0
	현지법인	2	0	0	0	0	3	0	5
	합계	3	0	1	0	0	3	0	7
호주	사무소	1	0	0	1	0	0	0	2
	지점	3	0	0	0	0	0	0	3
	현지법인	0	0	0	1	0	1	0	2
	합계	4	0	0	2	0	1	0	7
리오스	사무소	0	0	0	0	0	0	0	0
	지점	0	0	0	0	0	0	0	0
	현지법인	0	0	0	0	0	4	0	4
	합계	0	0	0	0	0	4	0	4
캐나다	사무소	0	0	0	0	0	0	0	0
	지점	0	0	0	0	0	0	0	0
	현지법인	2	0	0	2	0	0	0	4
	합계	2	0	0	2	0	0	0	4



발행일 | 2017년 8월 30일
 발행처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전국은행연합회관 6층
 전화 | 02-3705-6353
 팩스 | 02-3705-6285
 홈페이지 | www.cific.or.kr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에게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